

少陽人荊防敗毒散으로 몇가지 頑固한 頭痛을 治療한 체험

김권현*

少陽人의 荊防敗毒散은 東武李濟馬(1873年~1900年, 朝鮮咸醫人)의 著作<<東醫壽世保元>>(1894 著, 1900年出版)에 記載된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中の 處方이며 역시 中國醫學古籍<<外科理例>>과 <<攝生從妙方>>에 수록된 荊防敗毒散의 變方인 것이다.

<<外科理例>>에 收錄된 荊防敗毒散은 荊芥, 防風, 羌活, 前胡, 柴胡, 人蔘, 桔梗, 川芎등으로 組成되었는데 氣虛之人이 風參濕邪를 받아 病邪와 人體正氣가 肌膚之間에서 싸우면서 憎産壯熱하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사지가 아프고 땀은 없고 코가 막히고 痰이 많아서 기침이 나고 胸膈이 痞滿한 등 症狀를 治療하게 되어 있다. 李濟馬先生은 四象醫學의 原理에 쫓아 人蔘, 甘草, 枳角은 少陰人의 葯임으로 減하여 버리고 桔梗은 太陰人의 葯임으로 쓰지 않고 少陽人의 葯인 生地黃, 地骨皮, 車前子를 가하여 少陽人의 荊防敗毒散이라 立方하시였으며 전문 少陽人의 頭痛, 發熱, 無汗하며 가슴이 침침하고 脈이 浮緊한 症狀를 治療하게 되었다.

筆者는 多年間 本方을 使用하여 수십명의 疑難痛症을 治療하였는데 神奇한 臨床效果를 취득하였는바 그중 少陽人의 頭痛을 治療한 체험을 여러 朝醫同仁들에게 彙報하여 參考하시기를 바랍니다.

病例1. 流感杆菌腦炎으로 引起된 頭痛

患者 李XX, 남자, 23세 龍井市開山屯化紆廠技術科職員, 20여일간 열이 나고 기침이 나더니 連日히 煩燥不安하여 메스겁고 머리가 터지는듯 아파서 當굴었다. 腦脊液涂片檢査를 거쳐서 流感杆菌腦炎으로 확진되었다.

主訴는 頭痛이고 憎參發熱하며 목이 뻣뻣하고 肢體가 시큰시큰 아프며 汗은 없고 胸膈이 滿悶하여 참기 어려워 하였다. 體溫은 39.2도, 心率는 102次/分, 血壓 16/14kpa, 여위고 肌肉이 賤薄하며 下頷이 尖하고 말소리가 약하며 平소에 性情이 馬之性이요 火氣가 成局하니 少陽人의 頭痛으로 論斷하고 少陽人의 荊防敗毒散에 生石膏100g(碎, 先煎)加하여 두침을 복용하니 열이 내리면서 땀이 났으며 잠을 잘수가 있으며 頭痛이 크게 경감되었다. 이어서 十二劑를 服用하니 병이 완전히 治愈되었다. 實踐에서 느끼건대 荊防敗毒散은 抗菌消炎, 解熱鎮痛作用이 있음을 알수 있다.

病例2二. 少陽人肌張性頭痛, 病人 高XX, 37歲, 女性, 延吉市某廠(供鑽科職員, 精神刺激을 받으면서 頭痛이 발작하였다. 더욱이 離婚한 半年以來 心情이 不悅하고 食欲이 떨어지면서 옷배가 부듯하고 身體는 날로 여위어 갔다. 한차례 감기후 머리가 텅빈것

* 연변민족의학연구소

처럼 아프면서 잠도 잘수가 없었다. 各地로 다니며 中西醫를 많이 보았으나 효험이 없어 朝醫를 찾으니 성의껏 치료하여 달라고 하였다.

主訴는 頭痛이고 面黃神疲하고 失眠納減하며 寒熱이 往來하였다. 舌質은 淡하고 苔는 희고 脈은 浮緊하면서 緩하였다. 體溫은 38.7도, 心率은 87次/分, 血壓은 12/8kpa, 性情은 暴哀深怒하고 欲舉不欲措라 患者는 분명 少陽人이고 脾寒한 내재적 體質에 外邪를 復感하여 表邪가 深結하면서 發生된 頭痛이 確實하였다. 즉시 少陽人荊防敗毒散을 原方, 質量대로 六劑服用하니 땀이 나고 옷배가 꺼지면서 頭痛이 크게 경감되었다. 이어서 熟地20g을 加하여 十二劑를 服用하니 固疾은 가신듯이 나아졌다. 옛말에 千方易得이요 效難救라드니 荊防敗毒散이야말로 三神仙不死藥임이 틀림없다.

病例三. 産後頭痛

患者 姚XX, 漢族, 女性, 29歲, 延吉市建工街家庭女. 産 후에 風寒之邪를 받은후 머리가 시리고 아픈지 3개월 남짓하였다. 머리가 시려 모자를 벗지 못하여 날씨가 추우면 頭痛이 더욱 심하여 수건으로 몇겹씩 머리를 동여야 견딜수 있었다. 四肢가 차들고 아프며 땀이 없으며 胸脇이 苦滿하여 식사도 많이 못하였다.

主訴는 頭痛四肢酸痛이며 面萎消瘦하고 體溫은 36.2도, 脈搏은 67次/分, 血壓은 18/12kpa, 舌質은 淡하고 苔는 薄白하며 脈은 浮緊하였다. 하관이 좁고 性情은 氣燥易怒하며 體質은 上實下虛하며 脾腎陽虛 한 少陽人이 産後酸痛, 頭痛, 無汗, 胸滿등에 根據하여 少陽人 荊防敗毒散七劑를 服用시켰는데 諸症이 사라졌고 식욕이 크게 돌아섰다.

〔小結〕

荊防敗毒散은 <<少陽人이 口苦咽乾, 目眩, 耳聾, 胸脇苦滿, 産熱 往來而嘔>>등 症狀을 대상으로 設定된 秘方이며 方中에 羌活, 獨活은 祛寒發汗하여 舒筋止痛作用이 있으며 荊芥는 祛風熱하고 血脈을 다스리며 頭痛을 멎게한다. 특히 産後病에 常用藥이며 柴胡는 半表半裡之邪를 疏解하는 特長이 있으며 疏肝解鬱하고 陽氣를 升舉하는 作用이 있어 脾寒한 少陽人이 胸脇이 苦滿한데 쓰인다.

赤茯苓은 利水滲濕하고 健脾하며 安神作用도 부차적으로 있다. 生地黃은 清熱涼血藥이며 解毒作用이 있다. 地骨皮는 骨蒸潮熱를 治療하며 車前子는 利水通淋하며 清肺化痰作用이 있으며 前胡는 肺熱를 내리게 하고 頭痛을 멎게한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 藥物들을 科學적으로 配合하였으나 少陽人脾受産表寒證治療에서 가이 解熱, 鎮痛, 鎮靜 등 作用을 발휘할수 있다.